

19세기 영국의 동남아 식민지화 원인 연구 : “전략적 논의론”과 “신사자본론”을 중심으로

송 승 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II. 전략적 고려 vs. 신사자본론	참고문헌
III. 동남아에서의 영국식민주의: 전략적 고려와 경제적 이익의 복합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 영국제국주의(British Imperialism), 동남아 식민지(Southeast Asian Colonies),
앵글로-버마 전쟁(Anglo-Burmese Wars), 신사자본(Gentlemanly Capitalism),
자유무역(Free Trade)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영국의 제국주의 발생요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인 로빈슨과 갤러거의 “전략적 고려(Official Mind)론”과 케인과 홉킨스의 “신사자본론(Gentlemanly Capitalism)”을 통해 영국의 동남아 식민지화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이론은 영국 식민사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영국 제국주의의 주변부라 일컬어지는 동남아의 경우 기존 학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동남아의 영국제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이론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전략적 고려”론을 따르는 학자들은 영국이 “주변지역”인 동남아에 기울인 관심은 오로지 근처 주요시장인 인도나 중국을 수호하려는 군사전략적 목표였으며, 비용부담이 드는 군사행동이나 영토획득에의 욕심이 애초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19세기의 동남아에 대한 영토복속과 직접지배는 현지소요 또는 타 유럽국가(특히 프랑스)로부터 “주요지역”을 지키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반면 케인과 홉킨스의 신사자본론을 따르는 학자들은 런던의 신사자본계층이 동남아에서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관심이 이 지역을 “중심지역화”하여 영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어 직접통치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한다. 말레이 세계, 사라왁, 버마의 사례를 통해 본 동남아에서는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전략적 고려”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사자본가들이 현지의 경제적 이익에 눈을 뜨게 되면서 현지 상인과 결탁, 영 정부를 압박하여 이 지역 직접통치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I. 서 론

본고는 영국의 제국주의 발생 요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한 이론인 로빈슨(Ronald Robinson)과 갤러거(John Gallagher)의 “전략적 고려(Official Mind)론”과 케인(P. J. Cain)과 홉킨스(A. G. Hopkins)의 “신사자본론(Gentlemanly Capitalism)”을 통해 동남아의 영국식민지화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한다(Robinson and Gallagher 1953, 1961; Cain and Hopkins 1986, 1989, 1993). 1953년 발표된 “자유무역 제국주의”라는 논문과 1961년의 <아프리카와 빅토리안들: 제국주의의 절정>이라는 저서에서 논의된 로빈슨과 갤러거의 소위 “전략적 고려론”은 영국의 제국주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결과는 니콜라스 탈링(Nicholas Tarling)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식민연구자들에게 수용되었다. 1993년에 케인과 홉킨스에 의해 출간된 <영국 식민주의, 1688-2000>에서 논의된 신사자본론은 로빈슨과 갤러거의 이론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이었으며, 곧바로 해외 영국식민지 연구에 폭넓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후 두 이론 중 어느 한가지 이론이 한 지역의 식민화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두 이론에서 거론된 양상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수정주의 시각이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의 식민 연구에 폭넓게 적용되어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지만, 영국 식민지배의 변방으로 분류되는 동남아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영국의 제국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동남아시아는 사실상 두 이론이 한 가지도 배척됨이 없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즉, 동남아에 있어서의 영국 식민주의는 영국정부의 “전략적 고려”와 신사자본이라는 “경제적 동기”의 복합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식민정책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두 동기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달리하면서 유동했다. 따라서 위의 두 이론을 동남아에 적용시켜 영국 식민의 동기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두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동남아에서 전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세계(현 말레이반도, 싱가포르, 자바 섬 포함), 현(現) 말레이시아 영토인 보르네오의 사라왁, 그리고 버마(미얀마)의 식민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두 이론에서 제시된 식민의 원인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의 세력대결의 완충지로 독립을 유지했던 태국의 경우도 동남아에서 영국 식민 통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 글의 분량을 고려하여 영국이 직접통치를 실시했던 위의 세 지역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전략적 고려 vs. 신사자본론

1. 로빈슨과 갤러거의 “전략적 고려론”

제국주의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이론으로 나타났는데, 홉슨(J. A. Hobson), 슈퍼터(J. Schumpeter), 막스 베버(Max Weber)등으로 대표되는 고전 이론으로부터 레닌(Vladimir Lenin)으로 대표되는 맑시스트 이론, 로빈슨과 갤러거로 대표되는 “근자 서구학자들의 이론(More Recent Western Interpretations)”을 거쳐 “신 식민주의와 저개발 이론(Theories of Neo-Colonialism and Underdevelopment)”에 걸친 이론적 계보를 살펴볼 수 있다(이태숙 1990). 이 중 홉슨과 레닌 등은 1870년대에 시작된 유럽의 영토확장에 대한 욕구와 영국의 산업화와 독점자본(또는 금융자본)의 자본수출에서 팽창의 동력을 찾았다(Hobson 1902; Lenin 1969). 홉슨은 국내산업이 국내 경제에 재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산출했을 때 금융업자들은 돈을 해외로 내보낼 출구를 찾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불안정한 지역에 투자하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개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레닌은 특히 은행들이 보유한 재정 과잉이 제국팽창을 촉진시켰다고 분석하고, 식민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이자 최후의 역사단계이며 그 이전 단계의 “자유무역체제”는 자본주의의 본성에 의해 저절로 무너질 것이라 예견했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1953년에 “자유무역 제국주의(The Imperialism of Free Trade)”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1870년대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제국주의 연구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식민주의화가 그 이전단계인 “무고한(innocent)” 자유무역체제와 극적일 만큼 다르다는 레닌의 주장을 반박하고, 자유무역의 전성기이자 기존 학자들에 의해 “비제국적” 혹은 “반제국적”이라고 규정지어진 빅토리아 시대 중기(1840년대-1870년대)는 사실상 영국이 대양주와 인도주변, 아프리카에서 영토를 확장한 “제국적” 시기였다고 지적했다(이태숙 1990, 73). 실제로 아시아에서 오우드, 하(下) 버마, 주룽, 아프리카 남부의 바수톨란드와 그리켈랜드,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라고스와 시에라리온 인근지역 등 직접통치지역 획득뿐만 아니라 영 제국의 영향권 하에서 거대한 “비공식적 제국”이 성장한 점을 예로 들면서 로빈슨과 갤러거는 “자유무역 제국의 정책에 대한 통상적인 요약인 ‘지배하지 말고 무역하라’라는 말은’ 가능하다면 비공식적 통제를 통해 무역하라. 필요하면 지배하여 무역하라’는 말로 해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Robinson & Gallagher 1961, 13).

또한 로빈슨과 갤러거는 제국주의의 역사에 공식적인 식민지 영토 확장 혹은 식민지 국가에 대한 직접적, 공식적 통치뿐만 아니라 해외 상업망이 구축되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개입한 소위 “비공식적 제국(informal empire)”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빅토리아인들이 산업의 동력과 자유무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기독교 선교와 자유무역이 영국과 국제적 상업 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Robinson & Gallagher 1961, 1-6). 로빈슨과 갤러거는 또한 19세기 중기와 후기에 사실상 어떠한 “불연속성 내지 전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즉 영국 정부가 “19세기를

통하여 일관되게 제국주의 정책을 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태숙 1990, 74).

로빈슨과 갤러거는 빅토리안들과 영국정부는 불필요한 비용과 위험부담 때문에 해외에서의 영토확장이나 군사행동을 꺼려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제국주의”를 지향하고자 “비공식적 편법”을 선호했는데, 이 편법들로는 다른 유럽 열강의 영토적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다만 상업적 이익, 독점적 영향권, 혹은 보호권 만을 확보하는 방편이나, 민간회사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여 영국 정부가 통치는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및 전략적 이익을 꾀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이태숙 1990, 75-76). 빅토리안들에게는 이러한 소위 “값싼 비공식적 설득”이 “비싼 군사적 강제”보다 매력적인 주장이었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발생한 공식적 영토 합병을 설명하면서 로빈슨과 갤러거는 영국 정부의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힘이 제국주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오직... [편입되는] 새로운 지역의 정부가 영국의 상업적 또는 전략적 편입작업에 합당한 상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들 정부의 힘이 비교적 약할 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뿐이었다(Robinson & Gallagher 1953, 7; 이태숙 1990, 77).

위에서 언급된 “합당치 못한 상황”은 바로 1961년 발표된 <아프리카와 빅토리안들: 제국주의의 절정>에서 소위 “주변부 이론”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영국의 최대시장, 즉 영국으로 볼 때 “주요 지역”은 유럽, 미 대륙, 인도, 호주이며, 따라서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중동 등의 타(他) 지역은 “주변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1880년대 이후 급속히 확장된 아프리카의 식민화를 설명하면서 로빈슨과 갤러거는 인도로 가는 항로와 직접적 연관이 있었던 수에즈운하와 관련된 동부아프리카와 이집트 지역과 희망봉을 포함하는 남아프리카 지역을 수호해야만 했는데, 이러던 차에 당시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민족주의가 성장하자 전통적인 간접 지배의 방식으로 그 지역에서 영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이태숙 1990, 81).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친(親) 서구 정부가 붕괴하고 현지에서 반영 항쟁이 일자, 영국이 인도시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이 지역을 점령했고, 이것은 곧 프랑스와의 공조체제 붕괴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분할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태숙은 로빈슨과 갤러거를 요약하며, “모든 것을 작동시킨 중요한 변화는 아프리카 그 자체에서 발생했는데,” 하나는 이집트와 주변지역의 회교도의 원형민족주의(proto-nationalism)가 조성한 위기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보어인 민족주의(Afrikaner Nationalism)의 성장이 대륙의 분할을 초래한 아프리카의 동력이었다고 요약했다(이태숙 1990, 79). 로빈슨과 갤러거는 따라서 이 “주변지역”에 쏟은 영국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주요지역”에서의 영국의 우세를 위협하는 프랑스 등의 유럽경쟁자들로부터 주요지역의 시장을 보호한다는 “전략적 고려(strategic consideration)”였다고 설명했다.

로빈슨과 갤러거는 현지지역에 있던 영국상인들이나 공관의 관료들이 이 “주변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얼마간의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소수의 영국인들이 영국 정부에게 군사행동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 이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들은 영국의 간접통치 기초의

해외정책을 바꿀만한 주요한 사안이 못되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현지 일부 영국인들의 경제적 관심사는 정부의 주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로빈슨과 갤러거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주변지역에서 영국의 영토확장은 바로 영국의 “주요시장”을 다른 유럽경쟁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수호하려는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제국주의가 영국공권력이나 자유무역에 대한 이집트인 또는 남아프리카의 트란스바알인들의 현지 반영 항쟁에 대한 “방어적 행동”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영토확장이나 분할을 통해 “주변지역”에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려 함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로빈슨과 갤러거의 “주변부 중심의 해석”은 제국주의의 목표로서 전략적 이익을 상당히 강조한 이론이었다.

2. 케인과 홉킨스의 신사자본론

케인과 홉킨스는 <영국의 제국주의, 1688-2000>를 통해, 홉슨과 레닌이 주장했듯이 제국주의의 원인은 제국 본국의 경제력문제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개진했다. 케인과 홉킨스는 영국 식민팽창과 제국 성립의 주요 주체는 현지의 반영(反英) 소요 세력, 영국과 세력경쟁에 놓여 있던 유럽국가들, 혹은 현지의 영국 상인이나 공관이 아니라 바로 영국 내부 세력이라 규정하는데, 홉슨과 레닌이 그 주체를 산업자본가라 규정지었던 것과는 달리 이 주체가 신사자본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변지역에서 제국주의로 향한 진보적 움직임을 야기시킨 사건들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Webster 1998, 13-14). 그러나 케인과 홉킨스는 이러한 사건들의 이면에 신사자본가들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바로 영국 정부로 하여금 정치나 군사 행동을 개시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분석하였다.

신사자본가들은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 남부 영국지주계층에서 발전했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임대 소작지로 사용된 광대한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아 이익을 누린 지주계층이었다. 점차 교육수준이 높아가자 그들은 더 이상 사회변화와 기회에 뒤처지지 않고 사회발전에 있어 주요한 세력이 되었다. 특히 18세기 초 일련의 금융혁명 진행과정 중 지주세력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새로운 교육 기회와 사회적 인맥의 형성은 이 지주들을 도시 은행가들과 보험, 통신, 유통, 교통, 행정직에 있는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하였다. 옥수수법의 폐지로 인해 토지로부터의 경제적 소득이 타격을 받아, 그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경제적 이익을 구하기 시작했다.

신사자본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옹호자들이었다. 신사자본가들은 “의류 생산을 위한 양모 생산업자이거나 곡물수출업자”로써 해외무역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그 대다수는 사치품 소비자로서 아시아와 신세계로부터 수입무역을 통한 이익을 취했다”(Cain & Hopkins 1986, 518). 다시 말해서 이른바 “토지와 화폐의 결합”이 낳은 신사자본이 바로 영 제국이나 제국 팽창의 주요 동기인 것이다.

1870년대 이후 영국 식민통치가 간접통치에서 직접통치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 로빈슨과 갤러거와 달리 케인과 홉킨스는 “외국정부와 기업가들이 영국 자본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영국의 간접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지적했다(Webster, 16-17). 런던의 신사자본가들은 당

시 식민주의를 움직인 실세였다. 그들은 주변지역에서의 경제적 관심사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연관시켰다. 경제적 부에 힘입어 그들은 의회, 영국은행, 정부 부처들과 광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영국정부 자체는 비록 주변지역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 무관심했다 치더라도 신사자본들의 지원을 받던, 특허회사를 포함한 “투기적인 사업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영국정부를 압박, 설득해 “주변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윤을 추구했다(Cain & Hopkins 1986, 13). 바꿔 말하며 케인과 홉킨스는 제국주의 팽창의 원인으로써 메트로폴리탄에서 비롯된 경제적 동기가 실제 제국주의의 “실세(players)” 구도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은 제국주의의 관심이 “전략적 고려”에서 점차 신사자본가들의 이권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Cain & Hopkins 1986, 522).

케인과 홉킨스는 19세기 말 유럽의 아프리카 분할 문제에 자신들의 해석을 적용하여, 영국의 제국주의는 신사자본가들이 이 “주변지역”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결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전쟁(1899)을 설명하며 케인과 홉킨스는 남아프리카에 걸려있는 영국 금융의 규모를 예로 들었는데 금광업에 투자된 7천 4백만 파운드의 절반 이상이 영국 자금이었을 뿐 아니라 1900년에 이르면 영국은 급속히 팽창하는 남아프리카의 수입 무역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보어 공화국들을 통제하려는 값비싼 결정은, 남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상당한 금융적, 상업적 이해 관계를 보호해야 할 필요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Cain & Hopkins, 1986, 369-81). 케인과 홉킨스에 따르면 오토만 제국 합병도 단순히 우연, 개인적 돌발, 또는 현지 소요의 결과가 아니라 신사자본의 일관된 목표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다. 이들의 논지를 요약하면 최소한 19세기 중반부터는 이러한 경제적 마인드가 외교적, 군사적 전략적 고려보다 훨씬 강하게 영국 식민정책의 방향을 좌우했다. 케인과 홉킨스에게 주변지역의 사건들은 “식민팽창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증후군(symptom)”이었다(Cain & Hopkins 1986, 502).

케인과 홉킨스의 이론은 “신사자본”이라는 용어가 가진 불 분명성, 지주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평가, 산업자본의 역할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점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들이 제국주의에 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로빈슨/갤러거는 제국의 주변부에서, 케인과 홉킨스는 영국 내부에서 제국주의의 동력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이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거리가 되기도 하였지만 분명 영국의 식민지배를 설명하는 유용한 두 잣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Ⅲ. 동남아에서의 영국 식민주의: 전략적 고려와 경제적 이익의 복합

1. 기존 연구경향

동남아에서의 영국의 식민주의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니콜라스 탈링은 로빈슨과 갤러거 이론의 추종자였다. 탈링은 동남아에서의 영국의 팽창은 경제적 원인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로빈슨과 갤러거가 주장했듯, 그는 영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장애물 없는 세계 무역 네트워크 건설(unhindered global trading network)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국이 노력했다고 보았다(Christie 1994). 또한 영국의 군사행동은 국제적 맥락에서 볼 때 영국이 겪은 상대적 경제침체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써, 타 유럽국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임시 조정방안 또는 편법 이었다고 보았다. 탈링이 가진 로빈슨과 갤러거와의 견해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탈링이 동남아 연구에 있어서 당시 주요한 차 무역의 파트너였던 중국을 영국의 “전략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Tarling 2001, 5). 탈링은 동남아에서의 영국의 제국주의 발생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많은] 영국 결정들은 탈(脫) 동남아적(extra-Southeast Asian)인 전략적 고려에 따라 내려졌다: 타 유럽국가와의 세력구도; 인도에서의 영토지배를 보전하려는 필요; 1833년의 동인도 회사 독점 종료 이전에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욕망; 중국으로의 항해루트 측면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려는 목적 등이 그것이다. 비록 1830년대와 1840년대에 네덜란드와 약간의 경제적 동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긴 했지만, 동남아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향료공급지로나 중국 무역 증가 방안으로서의 중요도가 사라진 후부터 20세기에 말라야가 고무 붐으로 주요한 달러 획득국으로 부상하기까지 런던에서는 [동남아에 대한] 직접적이 경제적 고려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았다(Tarling 2001, 5).

탈링은 동남아에 얼마간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빈슨과 갤러거가 주장했듯, 경제적 이득을 가진 자들은 “1869년 수에즈운하가 개통되고 전기 전신을 통한 국제 소통이 가능해 지기 전 일정한 독립성을 향유하던 소수의 켈커타, 델리, 페낭, 싱가포르, 쿠칭, 라부안, 방콕, 홍콩 공관의 관료들, 상인, 탐험가, 신문편집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Tarling 2001, 6). 그러므로써 탈링은 신사자본과 같은 영국 내부 세력의 경제적 이익과 동남아에서의 영국 제국주의간 어떤 연계도 고려하지 않았다.

소수의 동남아학자들이 영국 식민주의를 보다 “동남아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학자들은 영국이 사실상 동남아에 강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동남아는 식민주의 연구의 변방”이라는 인식에 변화를 꾀했다. 라이트(H.R.C. Wright)는 예를 들어 1784년 페낭(현 말레이시아령의 섬)의 획득과 1819년 싱가포르의 획득을 둘러싸고 영국의 이익의 초점이 “인도, 중국, 영국간 식민무역”이라는 전략적 고려에서 동남아로부터의 직접적 이익창출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인과 홉킨스가 그 배경 동력

으로서 신사자본가를 지적한 것과 달리 라이트는 영국의 주변부에서의 식민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야기시킨 주체세력은 영국의 수공업자들이라고 분석했다(Write 1950-1, 229-239).

이밖에 동남아시아에서의 경제적 동기에 관심을 가진 학자로는 사라왁과 버마지역을 연구한 로버트 프링글(Robert Pringle), 올리버 폴락(Oliver Pollak), 마이클 아다스(Michael Adas) 등을 들 수 있다(Pringle 1970; Pollak 1979; Adas 1974). 동남아시아에서 신사자본에 대해 거론한 것은 존 갤브레이스(John Galbraith)와 앤소니 웹스터(Anthony Webster)로, 갤브레이스는 영국의 보르네오 특허회사(chartered company)의 설립에 대한 연구에서 이 지역에 신사자본이 초기부터 개입한 정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고, 웹스터는 말레이반도, 싱가포르, 보르네오, 태국, 그리고 버마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신사자본이 경제적 배출구로써 기능을 했는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Galbraith 1965; Webster 1998).

위에서 설명한 여러 동남아의 영국 식민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동남아의 영국 식민지였던 싱가포르, 보르네오, 버마의 사례를 통하여 동남아 영국 식민주의가 사실상 로빈슨/갤러거와 케인/흙킨스의 이론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밝힌다.

2. 말레이 세계의 사례

말라야(페낭, 쿠알라룸푸르, 말라카를 근거로 하는 현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자바 섬을 임의적으로 포함하는 말레이세계는 16세기 이래 이 지역에 국제무역의 한 파트너로 등장한 네덜란드 및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유럽세력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들 중 네덜란드의 강세를 깨고 영국은 유럽의 7년 전쟁(1756-1763) 이후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차지했으며, 수 년간(1811-1815) 자바를 지배하기도 했다.

니콜라스 탈링은 영국정부에게 말레이 세계는 대 중국 무역에 있어서 프랑스라는 경쟁국을 겨냥한 세력 완충지, 즉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서의 의미만이 있었을 뿐이라 분석했다. 즉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었으므로 영국은 19세기 말이 되도록 현지 분쟁과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만 노력했다는 것이다. 탈링은 킴벌리(Lord Kimberley)경이 약간 예외적일 수 있지만 “조셉 챔버레인(Joseph Chamberlain) 이전의 어떤 식민지 장관도 말레이 반도에서의 장기 목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Tarling 1969, 119).

탈링은 또한 말레이 세계에 대한 영국의 무관심은 1815년 네덜란드에게 자바를 반환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탈링은 영국과 네덜란드 모두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강한 군사력과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일 영국이 자바를 차지하고자 했다면 네덜란드가 결코 자바를 되찾지 못했으리라 분석했다(Webster, 53). 탈링은 영국의 자바반환이 전략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정부는 “네덜란드 왕국이 [자바지역에] 회복되고 강화되어 프랑스의 공격과 영토야욕으로부터 완충지 역할을 하길” 희망했다고 보았다(Webster, 53). 그 이유로 그는 영국으로 볼 때 “동남아에서의 영국의 해운수송과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 위협이 되는” 프랑스나 기타 유럽 세력보다는 네덜란드의 영향력 아래 현 인도네시아 군도가 있는

것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 분석했다(Webster, 53).

영국이 말레이 세계에 출현한 초반에는 탈링의 이러한 “전략적 고려” 이론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것은 1867년까지 이 지역에 식민사무소(Colonial Office)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당시 말레이 식민통치에 관한 모든 업무는 벵갈의 영국 식민사무소에서 결정되고 경영되었다.

그러나 많은 영국인은 동시에 토마스 스탬퍼드 래플스(Sir Thomas Stamford Raffles)경의 행정부(1811-1815)가 자바에 수립된 시기 이후로 점차로 말레이 세계의 경제적 이익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Tarling 2001, 16). 래플스는 자바 경영 기간 중 <자바의 역사>라는 명저를 남기는 등 현지사정에 밝은 점을 인정 받아, 병쿨렌과 멀라카의 식민경영을 위해 파견되었으며, 이후에서 자바를 공고하게 영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노력한 사람이다(Irwin 1955, 15). 래플스의 목표는 벵갈 사무소와 자바 생산자 및 무역업자간에 중간지(intermediary)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1814년 즈음 영국이 네덜란드에게 자바를 돌려주자는 논의가 무르익자, 래플스는 벵갈과 런던의 관계자들을 설득해 자바에서의 영국의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Webster, 54-55). 결과적으로 자바를 영국 영향권 하에 두려는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가 제출한 말레이 세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는 영국과 말레이 세계의 수많은 상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는 영국의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획득으로 이어졌다.

말레이 세계에 영국의 직접적 개입을 촉구한 래플스는 따라서 로빈슨과 갤러거의 “전략적 고려”라는 맥락에서 이탈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직접적으로 신사자본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탈링이나 웹스터는 래플스가 영국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바를 영국 영토화 하려고 “개인적으로 활동한” 식민지 총독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웹스터는 래플스의 동남아에 대한 “열정”에 관심을 보인 다른 계층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1870년대 후반까지 인도와 런던의 동인도회사 의회에서 활동하던 신사자본가들로써, 말레이세계를 통한 중국무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Webster, 56). 즉, 중국시장이 인도 아편의 주요한 판로가 되면서 동남아는 중국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부수적 시장의 대안으로 부상했다(Webster, 57). 따라서 웹스터는 래플스에 의해 건설된 싱가포르의 성공의 이면에는 분명 신사자본가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런던에서 인도와 말레이 군도 사이의 영국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로는 동인도 회사의 영향력 있는 이사였던 찰스 그랜트(Charles Grant)를 포함한 동인도 회사 관료들; 영국의 수공업, 상공업자들; ...런던에 기반을 둔 동인도 관련 직원 등을 들 수 있다... 나탄 로스차일드(Nathan M. Rothschild)와 알렉산더 베어링(Alexander Baring) 등의 은행가들은 정부의 경제적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양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對) 중국과 동남아시아 무역이 본질적으로 영국령 인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의원들을 지지했다. 이밖에 그들은 리버풀, 만체스터, 리드, 글래스고우 등지에서 압력그룹으로 기능했으며, 극동(Far East)의 무역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해 의회에 압력과 탄원을 행사했다(Webster, 87).

이러한 신사자본그룹에 의한 압력을 통해 싱가포르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런던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1850년대에 이르면 동남아는 벵갈의 면직상품과 인도 아편의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신사자본가들의 보다 본격적인 이권개입이 시작

되었다(Webster, 115). 말레이 지역에는 많은 영국은행들이 건립되고, 수출입 양이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규모의 성장에 부흥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1867년에 식민청을 해협식민지(Straits Settlement - 말라카, 페낭, 싱가포르, 라부안을 아우르는 지역)에 건설했다(Webster, 170). 이전에 말라야 식민경영에 관한 문제가 모두 벵갈의 인도사무소에서 관할되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분명 영국정책이 보다 경제적, “동남아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1860년대와 1870년대에는 말라야 지역에서 중국인 탄광노동자 소요, 비밀결사(secret societies)들의 활동, 그리고 왕권 계승문제 등 여러 현지 소요가 발발했는데, 이는 영국으로 하여금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초래해 영국이 결국 이 지역을 “직접지배”하기에 이른다(Webster, 179-184). 이 배경에는 현지의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 런던의 신사자본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압력이 또 한번 개입된 것으로써, 이러한 “상업을 위한 탄원서”에서 신사자본가들은 말라야 현지의 소요가 미칠 경제적 결과에 대해 심하게 과장했을 뿐 아니라 시모어 클라크(Seymour Clarke)등은 유럽의 “라이벌 식민 야욕의 위협”까지 강조하며 영국정부의 타 유럽국에 대한 경쟁심과 두려움을 자극했다(Webster, 187). 웹스터는 이러한 정황의 역동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말레이 반도에 있던 영국인들의 상업적 요구는 런던의 시모어 클라크라는 인맥을 이용해 영국 정부를 압박해 식민정책을 직접통치로 전환하게 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주식상장을 통하여) 주식 채굴 개발에 대한 런던의 재정지원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신사자본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해협식민지의 상인계층은 런던의 인맥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회사에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정치적 환경을 기업친화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 식민사무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런던의 재계에서 존경을 받던 인물인 시모어 클라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킴벌리경에게 주식회사의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1873년 11월 초에 슬랑오르 주식 회사(Selangor Tin Company) 대표와 회의를 가진 후 식민성 장관으로 하여금 앤드류 클라크(Andrew Clarke)경에게 회사의 경제적 전망에 대해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Webster, 188).

이와 같이 래플스의 자바 통치 이후 말레이 세계에서 영국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지역의 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영국이 20세기 이후 매우 수익성이 높은 고무를 말레이 세계에 들여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 세계에서 대략 1815년까지의 영국 영향력 초기단계에서는 전략적 관심이, 그리고 이후에는 신사자본가들과 연결된 상인들이 정부에게 말레이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영국 정부를 설득, 압력 행사, 탄원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서 신사자본가들은 마침내 이 지역을 영국의 직접통치지역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3. 보르네오의 사례

보르네오의 사례는 영국 식민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분야 연구가들은 1841년부터 1941년까지 사라왁(Sarawak) 지역에서 영국인으로써 백인왕(White Rajah)으로 군림한

제임스 브룩(James Brooke)과 그의 조카인 찰스 브룩(Charles Brooke), 그리고 찰스의 아들인 바이너 브룩(Vyner Brooke)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들에 관한 연구를 쏟아내었다. 제임스 브룩은 1831년에 무역을 목적으로 사라왁에 도착하여 브루나이 술탄왕국과 현지부족 사이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 브루나이 술탄을 도와 분쟁을 브루나이의 승리로 이끈 대가로 제임스는 술탄으로부터 사라왁 영토를 하사 받고 이 지역의 실질적 통치자가 된다.

브룩가문 통치를 영국 식민통치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는 일은 다소 황망스러운 일이다. 탈링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제임스 브룩이 현지에서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꾀한 전형적인 빅토리아인이었다고 분석한다(Tarling 2001, 23-24). 그러나 실제로는 제임스와 찰스는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헌신도 보이지 않았다. 제임스는 처음에 영국정부의 명령을 받고 지역탐사를 목적으로 사라왁에 발을 디뎠다. 현지 답사를 마친 제임스는 이 지역의 풍부한 주석광산을 보고 경제적 이익에 눈을 뜨게 되었다. 브룩가를 연구한 로버트 프링글(1970)은 제임스가 자바의 영토획득을 꾀한 래플스의 꿈과 유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임스는 영국정부가 실상 이 지역의 영토획득에 관심을 가지지 않자 영국정부의 영향권을 거부하고 고립정책으로 전환, 심지어 이 지역 내 영국 무역 상인들을 추방했다.

제임스가 사망하고 나서 사실상 사라왁 왕국을 공고히 한 것은 찰스 브룩이다. 그는 영국사회를 싫어하고 대신 사라왁 현지 원주민인 이반족(the Ibans)의 전사문화를 동경했다. 그가 영국에 갔을 때 찰스는 런던의 신사자본가들로부터 2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묵살되었는데, 이 영국의 상업, 자본 세력들이 사라왁의 경제성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찰스의 건방지고 오만한 태도가 원인이었다(Galbraith 1965, 106). 그의 부족한 외교술은 찰스로 하여금 사라왁의 영국의 관심을 받는데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1941년까지 외부에 대해 고립정책을 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브룩가의 사라왁 통치는 일반적인 영국 식민주의의 모드를 따르지 않는다. 브룩가는 그들 자신의 영토를 획득했으나 초기 제임스가 현지 소요에 개입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국정부와 거의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브룩의 통치는 그 지역 영국 식민주의 분석에 별로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사라왁에는 런던의 신사자본가들과 연결된 상인 집단이 또 하나 존재했다. 이들은 후일 영국 정부로 하여금 마침내 이 지역에 영국 북보르네오 특허 회사(The British North Borneo Company) 설립에 허가를 하도록 영향력을 미쳤다. 이 집단은 사라왁 지역에 초기 신사자본가들의 개입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 하다. 북보르네오 회사의 배후에 존재하던 신사자본가들의 존재를 처음 밝힌 사람은 영국 식민지연구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존 켈브레이스였다. 그는 찰스 브룩의 영국 설득 노력은 표면적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5년간 신사자본가들은 현지 상인들의 경제적 제안에 매혹되어 사라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런던 신사자본가중의 하나인 덴트가(家)는 정부를 설득해 이 지역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켈브레이스가 주목한 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덴트가는 런던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의 은행-상업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부유하고 존경을 받는 가문이었다. 그들은 영국의 최상위와 중상위 계층과 모두 연이 닿아 있었다. 알프레드 덴트(Alfred Dent)는 중국의 상인과 은행가들 사이에 가장 유망한 사업가였는데, 1889년에 중국협회(The Chinese Association)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그가 북 보르네오 개발사업을 후원한 것은 영국왕실(White Hall)과 다우닝 가(Downing Street)로써는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알프레드 덴트는 런던 상인들과 은행들로 구성된 협회를 만들어 북 보르네오의 발전을 위해 이름과 자본을 빌려주도록 했다. 이 협회의 초대의장은 극동문제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컸던 러더퍼드 엘콕(Sir Rutherford Alcock)이었다. 런던의 엘리트들은 중국, 싱가포르, 실론의 상업 공동체, 외교부와 식민부 관료...교회 등과 함께 덴트가를 지지했다(Galbraith, 111).

이러한 다양한 그룹들의 지원을 받아 덴트가는 영국 북 보르네오 협회(The British North Borneo Association)를 설립하는데 성공한다. 이 협회는 영국정부로 하여금 사라왁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말레이 반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사자본가들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럽국가와의 경쟁이라는 영국의 고전적 우려를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덴트가는 “이 지역에서 항구를 호시탐탐 노려 온” 독일과 네덜란드의 팽창 가능성을 강조했다(Galbraith, 119). 덴트가의 이러한 탄원에 대해 솔즈베리(Salisbury)는 보르네오가 전략적으로 거의 중요성이 없다는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덴트가로 하여금 마침내 북 보르네오 회사를 세우게 했다. 1888년, 브루나이와 회사의 영토는 결국 영국 보호령으로 복속 되었지만, 특허회사는 제 2차 대전 시기에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하기까지 식민의 의무 없이 영국의 질서를 유지했다(Galbraith 124).

영국 북 보르네오 회사의 설립에 대해 탈링은 그 목적이 “보르네오에서 외국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단기간적인 전략”이었다고 분석했다(Tarling 1993, 75). 그러나 그의 주장은 특허회사의 설립 이면에 있던 숨겨진 면모, 즉 신사자본가들이 경제적 목표를 위해 정부의 경쟁 유럽 국에 대한 불안감을 교묘히 조장한 것을 고려하지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4. 버마의 사례

영국의 버마합병에 관한 기존 연구는 로빈슨/켈러거의 “전략적 고려”가 전적으로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버마합병이 인도를 지키려는 영국의 전략적 고려, 버마에서 때마침 일어난 현지소요, 그리고 버마왕실의 비 협조 정책이 맞물려 영국 정부가 “불가피하게” 3 차례의 앵글로-버마 전쟁을 통하여 지역을 복속시키게 만든 기제라 분석했다. 이 분야 연구의 권위자인 라마찬드라(Ramachandra)는 런던에서 버마 현지의 불만이 얼마만한 우려를 자아냈는지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한 바 있다(Ramachandra 1978, 69-100). 앵글로-버마 전쟁을 연구한 올리버 폴락(1979) 또한 1830년대부터 1870년대 사이에 버마에서의 영국의 팽창을 버마 왕실과 영국 관료/무역상들간 현지 마찰을 그 원인으로 파악했다. 요약하자면 이 학자들은 버마를 영국의 진짜 관심지역인 인도의 “주변지역”으로만 파악한 셈이다.

영국으로 볼 때는 동남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버마에게 전략적 관심이 쏠린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영국정부는 특히 버마를 차지하려는 프랑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영국정부는 버마의 군주들이 프랑스와 어떤 정치적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했다. 버마 서부의 아라칸(Arakan)주에서의 영국의 개입은 그곳에 항구를 건설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을 봉쇄하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후일 영국정부는 버마정부가 인도와 버마 국경지인 아삼, 마니푸르, 아라칸 지역에서 영토확장을 꾀하자 매우 당황했다. 이 사건들은 영국 정부로 하여금 인도 보호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결과 제 1차 앵글로-버마 전쟁(The Anglo-Burmese War, 1824-1826)이 일어났다. 요약하자면, 대다수의 기존 학자들은 이 앵글로-버마 전쟁의 원인이 인도시장을 지키기 위한 영국정부의 전략적 고려라는 분석과 함께 버마 정부가 4개의 주를 병합하려고 한 현지 소요를 주된 원인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제 2차, 3차 앵글로-버마 전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진다. 스톡웰(A. J. Stockwell)은 제 1차 전쟁 이후 영국 상인들 사이에 이 지역으로부터 산출되는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후에도 영국은 버마의 경제적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상인들과 선교사들은 행정부가 그 가치를 의심스러워 하던 영토획득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Stockwell 1998, 376). 대략 제 2차 앵글로-버마 전쟁(1852년) 부터 신사자본가들이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자본가들이 영국 정부에게 보다 강력한 물리적/정치적 개입을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했다.

제 2차, 3차 전쟁은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1840년대에 버마의 많은 영국과 유럽 상인들은 “버마 왕실이 매기는 높은 무역세와 ‘훼방을 놓는 투의 각종 규제’”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Webster 146). 당시 버마에서 일어나는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영국사회에 이슈화 되었는데, 예를 들어 버마 왕궁에서 3명의 영국인이 살인죄로 체포된 일 등은 현지 영국 상인들을 감정을 상당히 악화시켰다(Webster 147). 이 현지 상인들은 곧 런던의 신사자본들과 곧 연결되었고 이에 따라 한 신사자본가가 영국 정부에게 탄원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는 왕실해군장교(Royal Navy officer)인 로버트 램버트 제독(Commodore Robert Lambert)을 버마에 파견해 현지정황을 알아보게 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에 램버트는 왕실의 거만한 태도에 격분해 소규모의 군사행동을 취했고 그 결과 버마 왕실에서 쫓겨났다(Webster 148-49). 이에 램버트는 영국 정부를 대신해 버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그 결과 1852년에 하(下) 버마지대(Lower Burma) 를 영토로 복속했다.

2차 전쟁을 전략적 논의 차원에서 고찰한 학자들과 달리 마이클 아다스(1974)는 영국 정부가 하 버마 지역이 풍부한 쌀 생산지로서 지닌 경제적 잠재력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다스가 경제적 관점에서 버마 합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는 전쟁의 이면에 누가 진짜 실제 합병을 부추긴 실(實) 세력(actor)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국 정부가 “비 개입” 정책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신사자본가 출신의 강력한 인물들이 정부로 하여금 버마에 합병이라는 행동을 취하도록 했다는 점을 간과했다.

결론적으로 제 1차 앵글로-버마 전쟁은 버마왕실의 국경지방 영토병합 시도를 차단하고 인도

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 영국 상인들은 버마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익과 관심사를 보호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버마 왕실은 버마내의 이와 같은 이익단체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를 견지하였고 이러한 강경한 자세는 영국 상인들로 하여금 하 버마(제 2차 앵글로-버마 전쟁)와 상(上) 버마(제 3차 앵글로-버마 전쟁)의 영토획득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신사자본가들은 버마의 사례에 영국 정부가 개입하도록 로비하고 탄원하였으며, 또 한번 버마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성공했다.

III. 결 론

로빈슨, 깰러거와 탈링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해외 식민정책이란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고 자국민들에게 세금부담만 늘려 줄 영토확장이나 직접통치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에 의거했다. 그들은 북미, 인도,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일부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남미, 중동, 동남아 지역을 중심지역 보호라는 전략적 목표만이 존재하는 “주변지역” 또는 “부수적 지역”이라 여겼다. 따라서 이러한 학자들은 영국정부가 이 주변지역에 경제적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하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국 현지 상인들의 “주변적 관심”이었을 뿐이므로, 이것이 영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행동과 개입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일부 동남아 지역 합병과 군사행동에 대해 이 학자들은 그 원인은 프랑스 등 유럽 경쟁국에 대한 우려와 현지의 반식민 도발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 규정했다.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이 학자들은 영국의 말레이 지역 직접통치, 버마의 복속, 보르네오의 특허 회사 설립 등은 곧 중국이나 인도로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우선 이 분석의 틀은 특히 19세기 이후 영국의 대 동남아정책을 실질적으로 방향 지어준 경제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영국의 식민지화를 전략적 고려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묵시적으로 영국이 사실상 군사행동을 하기에 힘이 모자란, 혹은 자국민의 세금부담을 감당하기에 너무 지친 상태였다는 분석으로써, 영국이 사실상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주장이다. 또한 영국의 유럽 경쟁세력에 대한 “우려”가 국가의 기본원칙인 “간접통치”의 방향을 “직접통치”로 전환시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영국이 그 라이벌 국가인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에 기울인 지나친 “염려”로 해석이 되어 바로 영국이 그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케인, 홉킨스, 그리고 웹스터가 제시한 신사자본주의론은 영국의 실증적 파워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보다 “동남아시아 중심적인”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일련의 학자들은 영국의 해외식민정책이 경제적 요인, 특히 런던의 신사자본가에 의해 주도된 경제적 동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1840년대 이후부터 동남아에서의 경제적 이해는 현지 상인이나 관료뿐만 아니라 런던의 신사자본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 동남아의 경제적 이권이 이 신사자본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면 영국 식민정책은 “전략적 고려”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말레이 세계의 래플즈나 사라왁의 제임스 브룩, 찰스 브룩과 같은 현지의 영국인 관료나 상인들의 요청과 탄원이 있었다 할 지라도 그들이 영국정부에게 요청한 영토확보 요구는 묵살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영국에 정치적 영향력이 부재한 “개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영국정부를 설득하고 로비 하여 이 지역에 보다 적극적 행동을 취하게끔 움직인 것은 바로 이 신사자본가들이다.

영국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신사자본가들은 실제로는 영국의 안위를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쟁세력과 현지 소요에 대한 위협을 과대 포장했다. 그러나 사실 19세기를 통하여 동남아에 실질적인 유럽 세력간 경쟁의 위협은 없었다. 인도차이나 지역에 프랑스 세력이 존재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무력행위를 통해 영국 영토를 점유하려 했다는 계획은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남아에서의 경쟁세력에 대한 영국의 우려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신사자본가들이 영국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영국의 식민주의는 초기에는 보다 전략적 고려에 의해,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경제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짓는 것이 무방할 듯 하다. 경제적 면에서 고려해 볼 때, 신사자본가들은 영국정부를 설득하는 데 매우 영향력이 있었다. 동남아에서 영국식민주의 연구는 따라서 신사자본가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태숙(1990). “제국주의의 주변부 중심론: J. 갤러거와 R. 로빈슨의 제국주의 이론.” 『역사학보』. 제 128호.
- Adas, Michael(1974). *The Burma Delta: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on an Asian Rice Frontier, 1852-1941*.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Cain, P. J. & A. G. Hopkins (1993). *British Imperialism, 1688-2000*.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_____ (1986).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Expansion Overseas, I: The Old Colonial System, 1688-1850.”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Vol. 39. No. 4.
- _____ (1989). “Gentlemanly Capitalism and British Industry 1820-1914.” *Past and Present*. No.122.
- Christie, C. J.(1994). Book Review of “The Fall of Imperial Britain in South-East Asia.”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 London. Vol. 57. No.3.
- Galbraith, S. John(1965). "The Chartering of the British Borneo Company." *The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4. No.2.
- Irwin, Graham(1955). *Nineteenth-Century Borneo: A Study in Diplomatic Rivalry*. Singapore: Donald Moore Books.
- Hobson, John(1902). *Imperialism: A Study*. New York: James Pott & Company.
- Lenin, I. Vladimir(1969). *Imperialism: The Highest State of Capitalism*.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Original Edition in 1939.
- Ramachandra, G. P.(1978). "The Outbreak of the First Anglo-Burmese War." *Journal of the Malaysi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51. No.2.
- Robinson, Ronald & John Gallagher(1961). *Africa and the Victorians: The Climax of Imperialism*. New York: Martin Press.
- _____ (1953).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VI. No. 1.
- Tarling, Nicholas(1969). *British Policy in the Malay Peninsula and Archipelago, 1824-187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Imperial Britain in South-East Asia*.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_____ (1993). *The Fall of Imperial Britain in South-East Asia*.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The British Empire in South-East Asia." Robin Winks(ed.).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 V: Histor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llak, O. B.(1979). *Empires in Collision: Anglo-Burmese Relation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Westport: Greenwood.
- Pringle, Robert(1970). *Rajahs and Rebels: The Ibans of Sarawak under Brooke Rule, 1841-1941*.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tockwell, A. J.(1998). "The British Expansion and Rule in South-East Asia." Andrew Porter(ed.).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 III: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8). "Imperialism and Nationalism in South-East Asia." Judith Brown and W. Roger Louis (eds.). *Oxford History of the British Empire. Vol. IV: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ster, Anthony(1998). *Gentlemen Capitalists: British Imperialism in South East Asia, 1770-1890*. New York: Tauris Academic Studies.

Abstract

An Analysis of the British Colonialism in South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Official Mind” and “Gentlemanly Capitalism.”

Seung-Won Song*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origins and natures of the direct British control over parts of Southeast Asia in the 19th century by applying two major theories on the subject of British Imperialism, “the Theory of Official Mind” by Robinson and Gallagher, and “the Theory of Gentlemanly Capitalism” by Cain and Hopkins. While these two theories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study of British imperialism in the third-world countries, the case of Southeast Asia has not been seriously dealt with in previous scholarship. In case of Southeast Asia, these two theories should be applied without marginalizing one.

From the analysis of three areas of the Malay World, Sarawak, and Burma, a conclusion can be derived that the British government maintained its “strategic concern” in Southeast Asia in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aiming at protecting India and China, its major markets, while this trend began to change when Gentlemanly Capitalists in London began to be interested in the economic benefits in the region. Supported by the local British merchants and bankers, these Gentlemanly Capitalists pressed and petitioned the British government to take more actions to bring this region under the direct British control. Accordingly, Britain’s expansion in the region can be understood as the amalgam of “strategic concerns” of the British government at the initial period and “economic concerns” of the Gentlemanly Capitalists in later period.

■ 논문접수일 : 2009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20일

* Assistant Professor, Sogang University

말레이 세계라는 용어는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 말레이반도와 싱가포르, 자바섬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학문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는 아님을 밝힌다.

사실 버마 왕실은 이 지역 공격을 통하여 인력 획득을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영국이 인력획득 목적의 동남아 식 전쟁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영토합병 목적이라 생각한 것이 버마의 비극 중 하나이다.